

철강

중국 정부 수출환급세율 조정안 발표

유틸리티/철강

Analyst 문경원, CFA

02. 6454-4881

kyeongwon.moon@meritz.co.kr

중국 수출환급세율 조정안 발표

4월 28일 중국 재정부는 수출환급세율 인하안을 발표. 열연, 냉연, 철근, 선재, 도금강판 등 146개 품목에 대해 수출환급세율 13%를 완전 폐지. 수출환급은 수출 시 증치세(부가가치세)를 환급해주는 제도이며, 이를 폐지했다는 것은 중국 업체의 가격 경쟁력 약화, 내수 업체 가격 경쟁력 상승으로 연결

이와는 별개로 중국 재정부는 선철, 조강 및 철스크랩에 대한 수입관세율을 0%로 인하. 전기강판, 페로크롬(스테인리스 강판 원재료), 주물용 선철에 대한 수출세율을 각각 25%, 20%, 15%로 5%p씩 인상. 이상 서술한 모든 조치들은 5월 1일부터 적용될 예정

사고 싶은데 등 밀어주는 중국 정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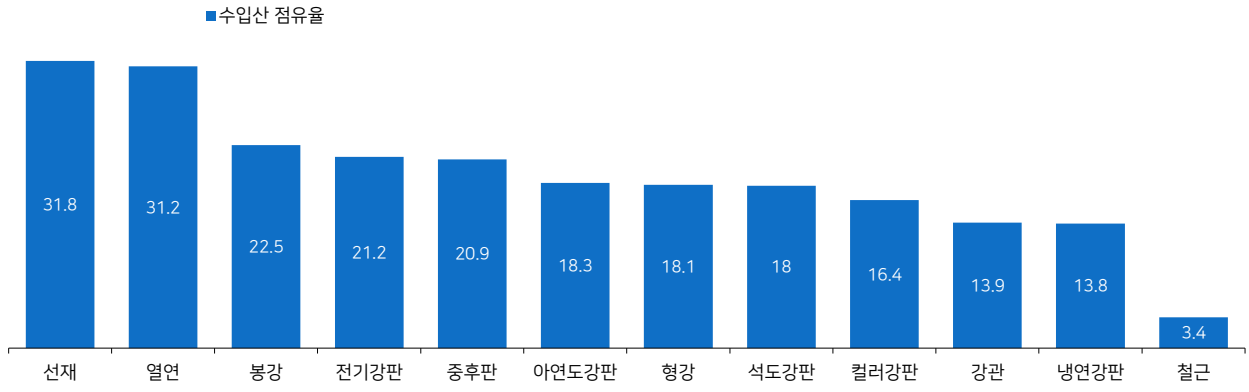
수출환급세율 조정은 이미 2월 초부터 철강 업계가 인지하고 있던 사실. 그러나 업계의 기대를 뛰어넘는 범위와 강도(일부 품목이 아닌 전품목 폐지)를 고려하면 단기적으로 추가 상승 모멘텀으로 작용 가능. 추가적으로 발표된 반제품 및 원재료(선철, 조강, 고철)에 대한 수입관세율 인하 역시 제품 가격 상승에 기여할 전망이다.

수출환급세율 인하에 가장 큰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품목은 열연을 비롯한 판재류 및 선재라는 판단. 국내 판매 물량 중 수입재 점유율이 높아 수입 감소 시 경쟁 강도가 완화되기 때문. 2020년 수입재 점유율은 열연 31.2%, 냉연 13.8%, 후판 20.9%, 철근 3.4%. 철근 업체는 영향이 미미할 것으로 예상되며, 오히려 중국의 철스크랩 수입 증가로 철스크랩 가격이 상승할 리스크가 발생.

공급 문제는 단기적으로 해소 어려울 전망

중국 정부가 수출 축소, 수입 장려 정책을 펼치는 데에는 내수 수요 증가 그 이상의 요인이 존재. 결국 철강 감산과 내수 인플레이션 압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함. 감산 정책에는 두 가지 구조적 배경이 있는데, 이는 1)탄소 배출 저감, 2)중국-호주 간 정치외교적 마찰로 인한 원재료(철광석, 유연탄) 수급 차질. 이러한 배경에 변화가 있지 않다면, 중국 내 감산 정책과 수출 물량 감소 현상은 중기적으로 지속될 가능성 높다는 판단

그림1 2020년 주요 품목의 수입산 점유율



자료: 국내 출하 대비 수입량 비율.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표1 주요 품목별 생산 업체

| 대분류 | 소분류 | 주요업체 |
|------|---------|-----------------------------------|
| 판재류 | 열연 | 포스코, 현대제철 |
| | 냉연 | 포스코, 현대제철, 동부제철, |
| | 중후판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
| | 전기강판 | 포스코, 현대제철 |
| | 컬러강판 | 동부제철, 동국제강 |
| 봉형강류 | 표면처리강판 | 포스코, 현대제철, 동국제강, 포스코강판, 현대비앤지스틸 등 |
| | 철근, 봉형강 | 현대제철, 동국제강, 대한제강, 한국철강 등 |
| 강관류 | 선재 | 포스코, 세아베스틸, 고려제강 등 |
| | 강관 | 현대제철, 세아제강, 휴스틸, 금강공업 등 |

자료: 메리츠증권 리서치센터

Compliance Notice

본 조사분석자료는 제3자에게 사전 제공된 사실이 없습니다. 당사는 자료작성일 현재 본 조사분석자료에 언급된 종목의 지분을 1% 이상 보유하고 있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작성한 애널리스트는 자료작성일 현재 해당 종목과 재산적 이해관계가 없습니다. 본 자료에 기재된 내용은 본인의 의견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있으며, 외부의 부당한 압력이나 간섭 없이 신의 성실하게 작성되었음을 확인합니다.

본 자료는 투자자들의 투자판단에 참고가 되는 정보제공을 목적으로 배포되는 자료입니다. 본 자료에 수록된 내용은 당사 리서치센터의 추정치로서 오차가 발생 할 수 있으며 정확성이나 완벽성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본 자료를 이용하시는 분은 본 자료와 관련한 투자의 최종 결정은 자신의 판단으로 하시기 바랍니다. 따라서 어떠한 경우에도 본 자료는 투자 결과와 관련한 법적 책임소재의 증빙자료로 사용될 수 없습니다. 본 조사분석자료는 당사 고객에 한하여 배포되는 자료로 당 사의 허락 없이 복사, 대여, 배포 될 수 없습니다.